

# 민주 당권 레이스... 권리당원 30% '호남의 선택' 주목

당 대표 선거 정청래·박찬대 대결 예상...호남 순회 경선 7월 26일 정청래, 대선 때 골목골목선대위원장 맡아 호남 당원과 친밀도 쌓아 박찬대, 원내대표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깊은 인연...당내 기반 탄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경선이 본격화 하면서 최대 표밭인 '호남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경선에 비해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당원 수가 많고, 전체 당원 투표에도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호남이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차기 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이번 전당대회에 쏠리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 (4선·서울 마포구 을)·박찬대 (3선·인천 연수구갑) 의원의 양자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정청래 의원은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을 맡아 호남 당원과 친밀도를 쌓았고, 박찬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으며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호남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5일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박 의원도 23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총지휘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호남 경선은 7월 26일 치러진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선출한다.

선출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8월 까지다. 임기 중 사퇴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이다.

순회 경선 일정은 ▲7월 19일 충청 ▲7월 20일 영남 ▲7월 26일 호남 ▲7월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일이 다음 달 10일로 다가오면서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이재명 정치인이며 당내 입지도 탄탄하다.

벌써부터 일부 후보군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비방도 시작되는 등 후보 등록 전부터 경선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이전보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30%가 있는 호남의 선택이다.

이번 대선에서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호남 지역을 주로 누빈 정 의원은 최근 선거 답례 인사 성격으로 다시 호남 지역을 찾아 당원들과 접촉을 늘렸다. 정 의원은 평소 선명하고 적극적인 행보에 앞장섰고,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으며 대중적 인지도도 더욱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박 의원도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강점을 내세우며 몸을 풀고 있다.

최근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대선 해단식 성격의 광주·전남 국회의원 만찬을 서울에서 가졌는데, 박 의원이 인사차 이 자리에 방문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이 지역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박 의원이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호남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I)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격적으로 호남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방문 일정과 22일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일정을 피해출마 회견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깊고 당내 기반도 탄탄하다"면서 "당원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야당과 원활한 소통으로 국정동력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관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다. 취임한 지 불과 18일 만에 야당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전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여야 지도부를)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는 입장이었다"고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손 한번 잡을까요"라고 제안하는 등 행사 내내 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는 임기 초반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서 야당과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며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 "정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했다고 우 정무수석은 설명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에는,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 대통령 "김민석 의혹 본인 해명 지켜보아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서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 "정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의)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

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했다고 우 정무수석은 설명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에는,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전했다.

우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실업급여 문제나 코로나 시절 부채 (탕감) 문제에 대해 본인이 가진 여러 생각을 얘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

에 여야 지도부는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외교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회동에서 중동 정세에 대해 걱정하는 대화들도 짧게 오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서광주농협 advertisement featuring NH Bank, zgm pay card, and various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and a QR code.